

지역의 산업발전과 산업클러스터 성공조건

- 산업클러스터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관심이 지리적 조건이나 천연자원과 같은 하드 측면에서 문화, 네트워크 등의 소프트 측면으로 변화하면서 클러스터 성패에 대해 새로운 논의가 전개
- 또한, 산업클러스터의 환경 외에 기업들의 이노베이션 등 자기변혁 능력도 클러스터의 성장과 지역 산업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

□ 산업클러스터의 성패에 대한 새로운 논의 전개

- 산업클러스터란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전개하는 지역 집적지로, 특정 지역에 동일 산업분야의 기업뿐만 아닌 선진적인 연구기관이나 대학교가 모여 경쟁력이 있는 이노베이션과 산업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말함
 - 클러스터 이론은 미국의 마이클 포터 교수가 주장한 것으로 클러스터의 국제경쟁력은 ①천연자원, 노동력, 인프라 등 입지 환경, ②관련 산업의 집적, ③고객의 존재, ④지역의 기업의 경영전략과 경쟁 환경 등 하드 측면에 의해 좌우된다고 분석
- 최근 클러스터 연구는 산관학 연계에 의한 연구개발 네트워크와 같은 소프트 인프라가 어느 정도 발달해 있고 기술혁신과 사업을 연계시키고 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
 - 애플과 같이 지역이 갖고 있는 기술 시즈를 글로벌 시장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기업의 조직 능력과 지역 집적에 주목하기 시작
 - 2000년대 이후 산업클러스터에 대한 논의는 지역이 가진 이노베이션 능력이나 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점에 주목하여 지역의 소프트한 경영자원, 환경, 인프라 등이 기업에 주는 영향을 중시하는 연구에 관심을 두기 시작
 - 경쟁력 있는 산업지역이란 문화나 역사, 가치관과 같은 지역의 소프트한 경영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수요를 창출하고 이노베이션을 일으켜 지식을 창조할 수 있는 기업들의 집적지역을 의미

* 교세라는 교토지역의 도자기 전통산업에서 발전시킨 세라믹을 차세대 제품 개발로 연결

□ 조직 능력과 벤처기업 창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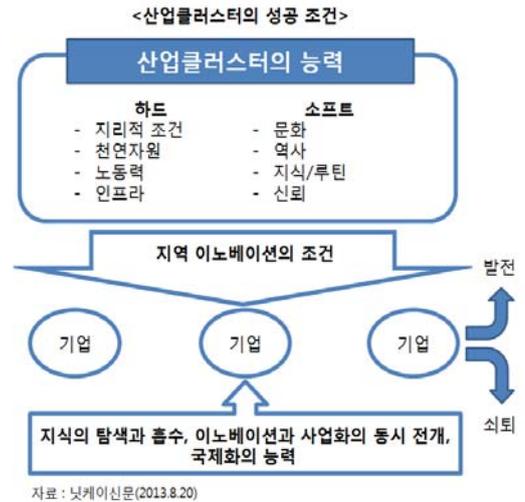
○ 산업클러스터의 환경을 잘 활용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이 있으나, 클러스터는 어디까지나 경영환경과 입지한 기업의 이노베이션에 관한 조직능력이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주장

- 특히 지역에서 많은 기업들이 공유하는 경쟁력 있는 사업 활동 노하우, 즉 ‘조직 루틴’ 이라는 소프트한 경영자원이 중요

- 이것은 제품이나 서비스, 이노베이션 등 기업 내부의 경쟁력이 높은 조직 활동을 말함

* 벤처기업에 근무했던 경영자나 관리자들이 이직 또는 신규 창업을 통해 사업 활동의 효과적인 패턴을 단기간에 다른 벤처에 전달하여 창업을 촉진

- 또한 외국기업의 진출이나 M&A를 통해 새로운 조직 루틴의 이식과 혁신이 일어나 국제경쟁력을 재생할 가능성도 있음



○ 기존의 산업클러스터 성패 모델에 관한 논의는 시장이나 정책 등 외부요인, 지역이 가진 소프트한 자원 등의 내부요인, 자기 변혁능력 등에 대해 주로 하나의 요인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지만, 최근에는 이 요인들은 종합시킨 적응적 진화 모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

- 미국에서는 전자업종의 대기업 공장이 공동화된 후 지역 리더들이 대학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적인 IT 이노베이션 구축을 통해 다시 성공한 지역 사례가 있음

- 디트로이트는 자동차산업 클러스터로 유명한 지역이었지만, 그 연구기관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차세대 기술개발의 공동화와 경쟁력이 약화

□ 시사점

○ 지역기업은 현재 산업클러스터의 경쟁력이 이노베이션을 활성화시키는 소프트측면이 중시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

- 지역기업들은 특정산업에 고집하지 말고 향후 기술이나 제품개발에 유리한 산관학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연계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연구개발 기능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

- 또한 클러스터가 환경 적응 여부에 따라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집중 투자를 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임
- 일본기업의 한국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된 지역의 경영 노하우가 확산되면 그 지역의 국제경쟁력이 증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
- 도레이가 구미시에 50억 엔, 아사히화학이 울산시에 200억 엔, 일본전기초자가 파주시에 400억 엔 투자하여 공장을 건설하여 일본기업의 노하우 확산이 기대되고 있음
- 향후 일본 등 선진기업을 유치 확대로 지역의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형성할 필요

<참고자료>

닛케이신문(2013.8.20)